

시인의 마을



너 땀시

오메, 까칠한 명자 입술이
 요렇게 예뻐당가
 으쩐다냐?
 나가, 나가 말여, 환장허것어
 그만 좀 웃으랑께, 살포시 바람처럼 말여
 어메? 달콤한 꽃술 한 잔에
 배가 부르디
 어떡하지, 별건 대낮에
 땀박질하는, 너 땀시**

- 박여범 시인, '안너 땀시' 전문

**땀시 : 체언의 뒤에 붙어, 어떤 일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보조사. 전라 지방의 방언이다.

시詩를 담다

어디 가도 꽃이다. 좋은 봄날에 나도 너도 꽃이 된다. 세상에 꽃 아닌 것은 없다. 철쭉이 파랗게 입을 내보인 것이 어제 같다.

근대, 거기다 덤으로 꽃봉오리가 얼굴을 쑥 내민다. 마치, 입술이 유난히 빨개 놀림을 받던 명자 누나처럼 말이다. /오메, 까칠한 명자 입술이 요렇게 예뻐당가/처럼, 성격이 디게 까칠했었던 명자 누나다. 가난했던 시절 그래도 부유한 집 딸이었던 명자 누나다. 그래서 더 까칠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어디서 지금은 무엇을 하며 사는지? 소식이 궁금할 때가 있다. /으쩐다냐, 나가, 나가 말여, 환장 허것어/그만 좀 웃으랑께, 살포시 바람처럼 말여/처럼 미소가 고왔던 누님이 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꽃을 만나다. 사진으로 남긴다. 나를 꽃봉오리에 빠져들었다. 너 땀시 /꽃술 한 잔에 배가 부르디. 너 땀시 말야.

어떡하지. 내 옆에 명자 누나가 서 있다. 살포시 웃으며 말이다. 그녀가 꽃술 한 잔을 내민다. 배가 부르디. 이 봄날 가득...



박여범

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사설

과거사 진상 규명 문제

과거사 진상 규명 문제가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이란 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았다. 실제로 이 간첩단 사건은 조작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역인 울릉도의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당시 울릉도 주민들은 모두 간첩으로 인식됐다.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은 지난 1974년 3월 15일 중앙정보부가 울릉도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간첩을 일망 타진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총 32명이 연루 됐고 이중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과 징역 총 119년형을 받았던 사건이다. 이에 앞서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최중길 교수 교문치사 사건이 터졌다.

당시 중앙정보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악화일로로 치달고 있었다. 중앙정보부로서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큰 것 한 방'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 바로 '울

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이다. 1974년 중앙정보부는 울릉도 주민들과 일본 농업 연수를 다녀온 47명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을 자행했다. 간첩 행위에 대한 허위 자백을 하게 했던 것이다.

그 뒤 1974년 4월 6일 3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3명에게 사형, 4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1~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형은 1977년 12월5일 집행됐다. 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이 성희 전 전북대학교 교수는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2010년 위원회가 중앙정보부에 의한 간첩 조작 사실을 인정한다 뒤 피해자들은 각자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피해자 13명(사망 8명, 생존 5명) 당사자와 가족들이 청구한 재심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면소 확정 판결을 했다.

전주시 교통정보센터 서비스

전주시 교통정보센터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첨단 교통서비스 제공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여전히 간단한 전자 신호 체계까지 갖추지 않은 시내버스 정류장이 많다.

전자 신호 사각지대는 대부분 이용객이 적은 곳이 많다. 이런 곳일수록 이용객들에게 오히려 어려움이 많다. 특히 겨울철 야간의 경우 등에는 주변에 불어 불 사람들이도 마땅치 않다.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많다. 교통정보센터는 시민 교통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1997년 설립된 교통정보센터는 중앙 집중식 실시간 교통 신호 제어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 집중식 전자 신호 체계를 도입했다. 교차로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신호 체계를 연동 체계로 개선하면서 차량 소통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

주요 교차로마다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관제함으로써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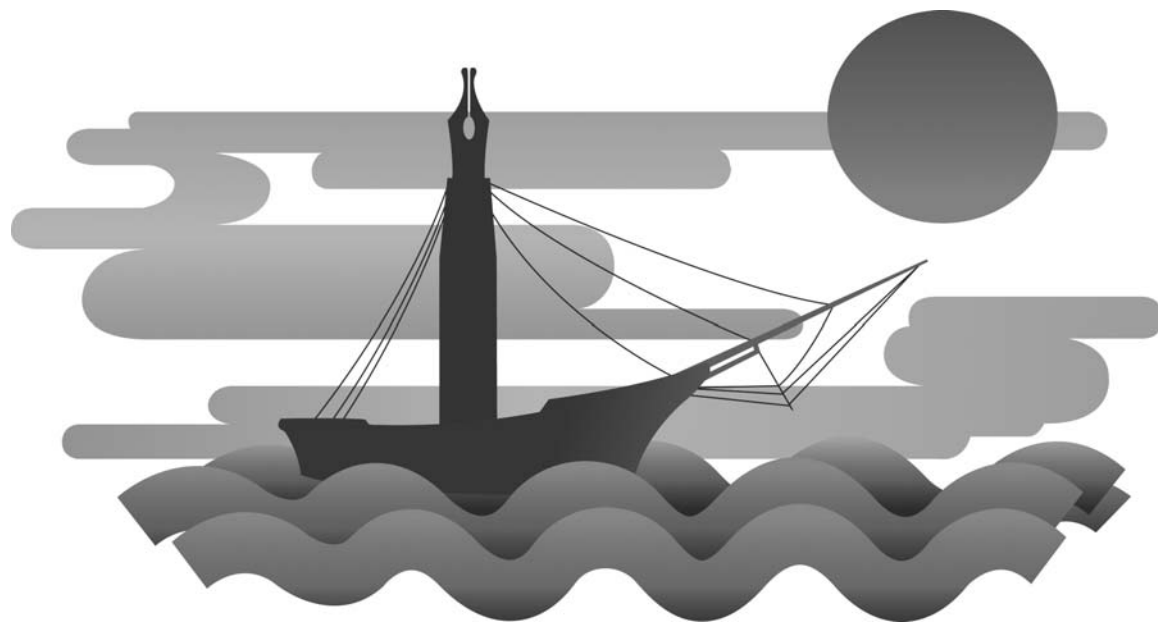
교통신호 연동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했다. 주요 도로에 교통전광판을 설치 운전자들에게 실시간 교통 상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시내버스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한 지난 2004년부터 관내 시내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의 편리함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은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교육 산실로 자리를 잡았다.

3D 입체 영상관 등을 갖춘 체험관에는 어린이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통 상황 및 사고 발생 등에 대한 신속 정확한 대응 업무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